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5 / 2024 Summer

지역과
기억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E FOUNDATION
BIFF

이슈

페이퍼

지역은 기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지역이 가진 무형유산을 살펴보고,
특히 영도와 하단포구, 어촌마을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재학생들이 기획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윤

편집위원 김선영 김주현 장혜원 이소민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4. 6. 17.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칼럼

지역의 기억과 장소 사용법	04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이슈

1. 부산무형유산의 기억과 전승 -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중심으로	07
김선영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전임강사	
2. 지역 공간의 무한변신 -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11
장혜원 / 쓰담 출판사 대표	
3. 생명체로서의 마을을 마주한 아카이빙 -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13
탁경아 /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4. 부산에는 사이어촌마을이 살아있다. - 어촌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능성	16
홍순연 /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사람과 현장

부산,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19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 조교수	

연구보고서 훑아보기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23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지역의 기억과 장소 사용법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장소는 기억이 배인 공간이다. 그곳은 살던 집이기도 하고, 오밀조밀 어디론가 내달리던 골목 길이었다가, 학교, 문방구, 은행들이 있는 동네가 되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지역의 풍경이 되기도 한다.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사람과 추억들이 문득 다가 오는 것처럼, 장소 역시 사람, 경험, 감정이라는 사건을 통째로 간직하고 있는 타임캡슐이 될 때가 많다. 그와 같이 장소는 그곳이 간직한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지역은 지역민의 일상 공간으로써 장소화 되며, 그때 장소의 기억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작동하게 된다.

부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일제강점기의 개항도시, 한국전쟁기의 피란수도, 4월혁명의 진원지이자, 신발, 합판 등 제조업과 조선업, 원양어업으로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기억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환기되고 출력된다.

부산 최초의 은행이었던 한성은행은 한성1918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되었고, 옛 경남도청은 석당박물관으로, 피란수도 때 정부청사는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남아있다. 미군정 문화정치의 심장이던 미문화원은 1980년대 미제국주의 타도 구호와 함께 던져진 화염병으로 그을렸었으나 지금은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이 되었다. 그 곁의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건물이 이곳의 본관이다. 원도심 중심부에 우뚝 솟은 민주공원은 민주화 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겨준다. 또, 2023년 12월, 일제강점기 한반도 수탈의 현장이자 한국전쟁 때 유엔군 투입과 유엔 원조의 통로, 산업화 시절 수출의 경로였던 제1부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결정되기도 했다. 그뿐이겠는가. 아미동 비석마을과 중구, 동구의 산허리를 휘감는 산복도로 마을들은 피란민들의 팍팍한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장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각하게 해주는 역사의 거울이자 과거로 안내하는 지도다.

그동안 발전이라는 개발 담론 아래, 사라진 장소도 많다. 놀라운 것은 장소의 파괴는 기억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때 부산에서 주목받았던 옛 부산시청 건물, 럭키화학 공장, 일제강점기 금강공원 인근 서양풍 별장(히가시하라 가지로의 별장으로 추정됨)과 같은 건물뿐 아니라 동네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부산문화재단이 있는 감만동도 한국전쟁 때 이주한 피란민들,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근거지가 되었으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감만 1동 일대 부지인 41만 8,719㎡가 완전히 사라지고 9,092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미디어 아티스트 홍석진과 안무가 허경미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감만기억>은 이러한 감만동 일대의 흔적을 붙잡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장소가 남는다는 것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장소의 소멸은 일상에서 해제되었기에 기억 속에 아스라이 잔류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사라지는 기억을 모으기 위해 부산일보는 2022년 10월 레코드 부산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옛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추억들을 담아 내고 있다. 그곳에서는 사라진 미화당백화점, 무아음악감상실, 동보서적 등의 장소를 지금의 감각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지역의 기억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지역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식자원이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도시로 1950년에는 인구수가 185만명에 달하였으나 생산공장과 시설이 다른 지역과 해외로 이전되자 지역 경기 쇠퇴와 함께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심이 공동화되었으며 마침내 2013년 7월, 디트로이트시는 파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지방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지역의 건물이나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빈 건물로 버려져 있던 소방서를 개조한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Detroit Foundation Hotel), 자동차 판매점을 개조한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MOCAD: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troit)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제조도시라는 지역의 DNA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의 투자를 다시 일으켰다. 1988년 이후 문을 닫았던 미시간 중앙역이 포드에 의해 자동차 첨단 기술 개발 연구 시설로 재생되어 2024년 6월 뉴랩 엣 미시간 센트럴(Newlab at Michigan Central)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간직한 유니크한 공간 속에서 실업률 감소와 경제 회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방서를 리모델링한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
출처: 디트로이트 파운데이션 호텔 홈페이지

한때 390만명(1995년 기준)에 육박했던 부산의 인구수도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산구조의 변화, 저출생, 수도권 집중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320만명(2024년 4월 기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2만 3천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계 출생률도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0.66명(2023년 기준)이며, 고령인구의 비율도 22.8%(2023년 기준)로 초고령사회 지표가 되는 20%를 넘고 말았다. 인구 감소는 빈 공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디트로이트시의 사례처럼 이는 지역의 문화자원이 될 수도 있다.

장소는 기억을 인도하고, 기억은 지역의 정신적, 정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은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활용할 것인가. 빈 건물과 폐관된 시설은 경제 논리로 허물어 버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 이때,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의 결은 달라야 한다. 두 사업의 목적과 추진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관광사업은 관광객 유입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적 수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 수익 확대가 목적이라면 빌바로나 시드니의 사례처럼, 이전에 없던,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볼 거리를 만들어야하겠지만, 지역의 장소 기억은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일상공간으로 재생되는 것이 그 기억을 더욱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 한성은행이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된다는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변모하면서 1층에 카페를 들여 개방감을 높이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의 기억은 유·무형유산처럼 자긍심을 높이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을 되새기는 일도 될 것이다. 영광의 기억만 남긴다면, 후세는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업인 타테이시의 옛 주택을 중구문화원으로 개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사랑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예이다.

한편 시민의 미시사, 즉 마을 기억의 문화화 작업도 중요하다. 산복도로 피란민의 삶터를 문화적으로 재생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나 감천 태극도 마을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조성한 감천 문화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삶의 쾌적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칫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혼용될 경우, 오버투어리즘이나 슬럼 투어와 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장소는 기억의 저장소이고, 기억은 미래에 남길 지혜이므로, 지역의 장소들은 그 기억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오늘의 기억을 만들어 간다.



(좌) 부산근현대역사관(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 (우) 부산중구문화원 안뜰(옛 타테이시 주택)

출처: 박소윤

부산무형유산의 기억과 전승

-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중심으로

김선영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전임강사 · 부산고분도리걸립 전수장학생

부산고분도리걸립이 간직한 부산의 기억

2024년 2월 13일(음력 정월 초사흘)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충무동 새벽시장, 이른 아침부터 걸립패들의 악기 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기 위한 부산고분도리걸립 지신밟기 행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우수 선생(1948년생,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상쇠 및 풀이 예능보유자)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유입된 풍물꾼들이 모여서 고분도리걸립을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지신밟기, 걸립굿을 해왔고, 걸립을 할 때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이 1860년대에 서구 서대신동에 세워졌다는 『시약산 산제당 약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고분도리걸립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걸립굿이 일제강점기 동안 쇠퇴하였다가 정우수 선생의 말처럼, 전국의 풍물꾼들이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걸립지신밟기 소리의 달인이었던 유삼룡 선생(1898~1970)과 아미동에 거주하던 농악의 명인 이명철 선생(1905~1973)이 기능에 뛰어난 단원들을 모아 1952년 아미농악단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아미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던 곳으로, 고향을 떠나 한반도의 끝자락 부산에 와서, 모르는 이의 무덤가에 기대어 사는 피란살이는 신산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 아미농악단은 재액초복(災厄招福) 혹은 벽사진경(辟邪進慶)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령스러운 풍물굿으로 이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 줬을 것이다.

성주신 일대기를 자세히 묘사한 성주풀이, 용왕굿, 채상모 소고놀이와 들벅구놀이가 함께 병용된 춤사위 등 전국 각지의 기예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분도리(서대신동의 옛 지명)와 아미동에서 한 물결로 만나 되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아미농악에서 연희농악 구성으로 1980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부산농악이 먼저 지정받았고, 이후 부산 서구 일대에 예부터 행해오던 지신밟기를 걸립 풍물굿으로 발전시켜

2011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부산고분도리걸립이 지정됐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지신밧기에 들어가기 전 의례적 절차를 먼저 밟는데, 현재에도 그 터와 제당이 남아있는 서대신동의 당산에 가서 당산굿을 올리고 당산신의 가호를 농기에 받아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며 안가태평(安家太平)을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다른 지역의 지신밧기에는 없는 과정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바다를 향해 축원하는 ‘용왕굿’을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의 서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남향과 인접하여 다수의 지역민들이 어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했고, 이에 배가 출항할 때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굿’이 부산고분도리걸립 전체 연희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고로 오늘날 부산 서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은 충무동 새벽시장에서의 부산고분도리걸립 신년 첫 지신밧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50년대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 배에서 내린 어류 등을 광주리에 이고 나와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충무동 새벽시장 상인들의 기억 속 새해 정초의 풍경에는 언제나 <부산고분도리걸립패>의 지신밧기가 있었다. 2024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장사가 잘되기를, 가정에 건강과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우렁찬 걸립패의 악기 소리와 상쇠의 풀이 “악귀 잡신은 물 알로 가고 만복수복(萬福修福)만 이리 오소”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런 걸립패의 축원에 덩달아 어깨춤을 추는 상인들을 보면, 우리의 민속문화는 여전히 삶터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미농악단, 아미 1동 동사무소 낙성식(개원식), 1963년 2월
출처: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무형문화유산 전승, 멀어도 가야 할 길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부산고분도리걸립을 오롯이 전승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 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제도가 대표적일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꾀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은 우리의 민속문화가 전승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주었다.

2024년 현재 부산에는 국가무형문화유산 6종목, 시 지정 무형문화유산 25종목이 있으며 총 5개소의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부산시의 무형문화유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운영하는 구덕민속예술관에

서 <부산농악>, <구덕망개소리>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전승 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향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 시행된 부산민속예술제, 무형문화재 달빛나들이 공연, 일상 속 공간으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공연 등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계	국가지정문화재(87)							국가 등록 문화재	시지정문화재(311)				문화재 자료	시 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명승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551	8	56	6	7	2	6	2	22	215	25	52	19	127	4

[표 1] 부산시 문화재 현황('24. 1. 1 기준, 단위: 건)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서



부산고분도리걸립 공연장면

출처: 안창림

지난 5월 ‘2024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앞선 행사들이 우리 전통민속예술 고유의 흥과 멋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의 형태라면 ‘2024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는 그 결이 조금은 다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시 무형유산 전수학교 및 지역의 모든 전승단체(보존회)가 참여하는 경연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972년을 시작으로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청소년부는 40회, 일반부는 52회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경연대회의 최우수 2개 팀은 부산시 대표로 전국대회인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한 연유로 부산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 전수학교 학생들과 시지정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책임지고 있는 각 보존회 회원들의 전승교육 성과 공유와 함께 민속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독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 하겠다.

대회일자	참여부분	참가팀(개)	출연인원(명)
2015 (5.21 ~ 23)	청소년부	26팀(초등 8, 중등 3, 고등 10, 대학 5)	1,000
	일반부	14팀	600
2024 (5.25 ~ 26)	청소년부	10팀(초등 5, 중등 0, 고등 3, 대학 2)	331
	일반부	14팀	566

[표 2]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현황 비교

출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2015, 2024년 보도자료 참조

일반부의 참여 단체와 출연인원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청소년부는 2015년 26개팀 참여, 1,000여 명 출연에서 10여 년 만에 2024년 기준 10개팀 참여, 331명 출연으로 축소되었으며, 올해 중등 고급은 단 한 팀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14개 종목 중 청소년부는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전수학교의 감소로 7개 종목만이 출연하여 큰 우려를 남겼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이슈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 폐과),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부재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몇몇 학생들은 “재미없다, 촌스럽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힘들기만 하다,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우리 전통민속예술이 우수하다 한들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한 시대의 옛 흔적인 역사 교과서나 동영상으로만 기록되지 않을까.

아이 한 명을 키워내는데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듯, 지역의 특색과 가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기량이 뛰어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전 세대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 모든 마을의 구성원이 정초 지신밟기에 참여했던 그때처럼,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과 주민들이 다 함께 서로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사물악기 장단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미래를 꿈꾸길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먼 미래가 두려워 할 문화의 종(種)이기 때문이다.

1 예시) 부산고분도리걸립 우물굿 '비나니요 비나니요 우물님 전에 비나니요/이 샘에 청정수 마시 거들랑 수명장수를 점지하소/비나니요 비나니요 새미님전에 비나니요/칠년대한 가뭄에도 풍당풍 덩 솟아나소' :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식수의 중요성을 살피볼 수 있는 대목으로 환경보호를 큰 주제로 물 부족, 식수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한 초등교육과정 적용 가능.

지역 공간의 무한변신

-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장혜원

쓰담 출판사 대표

살아가는 공간, 사라지는 공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도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하며 변화하고 있다. 사라지는 공간을 볼 때면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인구의 감소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이 유향화되고,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폐산업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유향공간이 증가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지역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유향공간의 활용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히든카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짓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해 리노베이션하기에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를 만들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영도의 과거를 넘어 현재로

부산은 항만도시이며,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온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중 부산의 영도는 영도만이 가진 지역적 헤리티지를 잘 활용하기로 유명하다. 영도도 시대의 흐름을 빗겨갈 순 없기에 다양한 형태의 유향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찾아와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다. 영도 그 자체가 리빙랩이 된 느낌이다. 영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조선소가 생긴 곳으로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관련한 폐산업시설이 많이 생겼다. 폐산업시설은 유향공간이 되기 전 부산을 이끌었던 주요 산업시설이었던 기억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유향공간을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많다.

영도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은 '무명 일기'는 1959년에 지어진 근대항만 보세창고를 개조한 공간이다. 2018년에 오픈하여 카페로 운영하면서 문화 공연, 예술 전시 및 각종 커뮤니티 행

사를 개최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영도의 지역성 특색을 지닌 공간을 리노베이션하고, 그곳에서 무형의 영도 지역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고자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기에 그 가치가 크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경험형 미식 콘텐츠 ‘영도 소반’이 있다. 과거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삶의 흔적이 담긴 영도의 이야기를 건강한 음식을 통해 표현하여 제작한 콘텐츠이다. 김미연 대표와 ‘무명 일기’ 프로젝트를 함께한 오재민 대표는 영도의 역사와 산업, 삶 모두를 담고 있는 봉래동 물양장의 바지선을 활용하여 해상정원 및 문화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도 동삼동의 노후 된 수리조선소 자리에는 방주 모양의 ‘피아크’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자리잡았다. 마치 대형 선박이 육지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배를 모티브로 설계해 내부에서도 마치 승선한 느낌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침체되었던 조선업을 몸소 느낀 부산의 수리 선박 기업 ‘제일SR그룹’에서 도시 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 ‘어반플레이’와 협업하여 만든 곳이기 때문이다. 영도 지역에 뿌리를 둔 ‘제일SR그룹’은 버려진 공간에 그룹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피아크(P.ARK)는 Platform of ARK for creators의 줄임말로 창작자를 위한 방주가 되겠다는 의미와 알파벳 그대로 읽어 ‘공원(Park)’이라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편안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아크는 F&B를 넘어 문화, 예술,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각자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한다.



영도의 문화복합공간 ‘무명 일기’의 리모델링 전후
출처: 무명 일기 대표

함께 상생하기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2021년 진행했던 영도 문화도시 연결포럼 <도시정책, 문화로 이어지다>의 다섯 번째 포럼의 주제가 흥미로웠다. ‘폐조선소, 멈춰진 역사에서 문화공간으로’라는 주제였는데, 부산일보 2021년 2월 23일자 기사 “세금 때문에… ‘폐조선소 문화공간 전환’ 실패로 끝나”를 계기로 열렸다고 한다. 1998년 설립된 거창 조선소는 조선업 하락세에 2017년 조선소 운영을 중단하고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2019년 3월부터 지역의 예술 공연 장소로 주목 받은 곳이다. 하지만 전시와 공연, 영화 촬영 장소 등으로 활용되던 곳이 재산세 폭탄으로 세금 제도에 막혀 식품회사의 제조공장으로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유희공간이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공간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체로서의 마을을 마주한 아카이빙 - 하단포구, 문화路 있다.

탁경아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지역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고민

부산의 사하구에 거주지를 두고 이곳에 정착한지 18여 년이 되었다. 지역민들과의 커뮤니티와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 역사, 놀이, 치유 등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왔고 항상 '지역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기획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이즈음 지역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2019년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으로 이곳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옛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여 『하단을 담은 이야기』라는 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을활동가, 학부모, 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 편집단이 구성되어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후 사업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몇 참여한 주민들로부터의 못내 아쉬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주민들의 아쉬움으로부터 그 답을 찾게 되었다. 흔적만 남은 '하단포구'를 주제로 지역을 지역민이 직접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한 '아카이빙'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흔적만 남겨진 하단포구

하단포구는 조선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였다. 인근 명지 염전에서 생산되던 소금과 갈대를 이용한 제품 등을 모아 상류로 보내던 포구이기도 했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조선시대의 물동량이나 사람들의 왕래로 인한 장(場)이 섰던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2일, 7일이 되면 꽤 큰 규모로 오일장이 서는 '하단상설오일장'의 근원이 되었던 포구였다. 하지만 김정한 선생님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에서처럼 해마다 겪게 되는 낙동강의 홍수로 모래톱이 점점 높아지고 갈수록 포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포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현재 나루터가 있던 곳은 햇님공원이 되었으며 그곳에는 하단 포구를 기념하기 위해 세

운 ‘하단포비’ 하나가 전부이다.¹



현재의 하단포구의 모습
출처: 탁경아

생명체를 가진 마을

마을은 새롭게 태어나고 사라지며, 성장, 쇠퇴해져가는 생명체와 같다. 그러한 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며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하단포구와 낙동강 일대의 생태공원들을 들여다보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하구 지역 일대가 견뎌온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대티고개를 넘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관심 밖이었다. 강과 바다를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1937년 대티고개 분뇨 수집장이 들어서며 그 내용물은 관을 통해 낙동강으로 배출되었다. 현재 하단의 본병원에서 하단 오거리를 지나 올해 완공이 된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 바로 하단포구를 지나는 길이다. 이곳은 ‘똥동네’로 불릴 만큼 소외되었고 부산에서도 가장 배제되어 왔던 서부권 지역, 사하구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모래톱 인근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간 주민들의 애처롭고 척박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기도 했다. 수문을 지나 을숙도 문화회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을숙도 생태공원은 해질녘의 아름다운 노을과 철새들의 비상은 숨을 멎게 할 만큼 감동의 색채를 연출하는 장관이다. 그러나 이곳은 1993년부터 부산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한 매립장이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비만 오면 새어 나온다는 침출수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픔과 상실을 품은 그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

우리가 접근한 아카이빙은 단순한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생애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삶이며 연결, 지지, 공감의 동질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¹ 하단1동 주민자치회(2019), 『하단을 담은 이야기들』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우선 지역자원의 분류를 공간, 사람, 이야기로 나누어 “첫째 포구, 길을 잇다, 둘째 포구, 시장을 잇다, 셋째 포구, 사람을 잇다, 넷째 포구, 이야기를 잇다, 다섯째 포구, 문화로 잇다” 라는 다섯 개의 주제로 접근하였다. 하단포구의 유래와 역사, 사례연구 및 하단동의 마을답사, 주민들과 오일장의 상인들을 만나며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하단포구를 거점으로 매립으로 사라진 길, 새로 이어진 길, 자리를 옮겼지만 포구로 시작이 된 하단오일장, 그리고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울숙도 생태공원까지 아카이빙을 통한 3가지 테마로 축소하여 정리되었고 ▲포구를 듣다 - 세물머리 하단 ▲시장을 보다 - 하단오일장 ▲자연을 지키다 - 울숙도 생태공원 철새도래지라는 주제로 ‘다같이 돌아 동래 한바퀴 투어 코스’가 만들어졌다. 코스의 각 위치마다 아카이빙한 자료로 거점의 생애를 설명하였고, 이 코스는 결과발표회의 마을축제 당시 주민들과 코스를 돌며 실제로 진행해 보기도 했다.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고 매일 지나가는 골목 곳곳의 숨어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반가움과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진행 과정속에서 인터뷰한 황포돛배 조선명장이신 김창명 선생님은 고령 임에도 불구하고 황포돛배 (황포돛배의 원조가 하단돛배라 할 만큼 그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시다)를 지금까지 제작하시고 곳곳에 체험을 직접 다니시며 이름과 전수에 각별하셨다. 투어 당시 주민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황포돛을 직접 올리고 내리는 장관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투어 지도 만들기

출처: 탁경아

하단포구에 대한 현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2023년도에는 사운드 아카이빙의 결합을 시도했다. 지역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다.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역민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생로병사를 알아가고, 곧 사라질 현재 기억들을 기록으로 전환하는 아카이빙의 다양한 시도들은 미완성이지만 현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전달자로서 갖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산에는 사이어촌마을이 살아있다.

- 어촌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능성

홍순연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5월의 기장은 다시마를 말리는 모습으로 장관을 이룬다. 텅 비어있던 중동항 물량장도 빈틈없이 다시마로 꽉 채워져 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진 다시마는 봄 햇빛을 쬌면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건조기에 들어가 말린 후 가공을 통해 우리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친다. 기장사람들의 1년 바다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기장은 전통적인 반농반어마을로 바다농사뿐만 아니라 쪽파, 옥수수 까지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부산의 사이어촌마을이다. 이곳에 정착한 것도 이제 약 9개월에 이르게 되면서 일반적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산임에도 부산이 아닌듯한 낯선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장 문동항 물량장 전경

출처: 홍순연

어촌신활력 사업의 시작

2023년 겨울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어촌재생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기업 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수산업·어촌 발

전기본법」에 의한 어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촌공동체 중심으로 어촌계를 비롯해 부녀회, 마을자치회, 청년회 등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의 지역으로 확장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다르게 어촌생활권은 주변 지역 간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찾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생태계를 재편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과 연결한 마을, 동일한 어업권을 가지거나 수산업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 도보권을 기준으로 중심 어항에서 5km 내외로 범주를 정하였으며 그 주변생활권을 서로 연계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하고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특이점은 이를 관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추진조직에서 앵커와 링커의 개념을 통해 조직화를 재설정하여 지역 내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 내 참여그룹은 문화, 복지, 건강 등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조직들의 역할 또한 다양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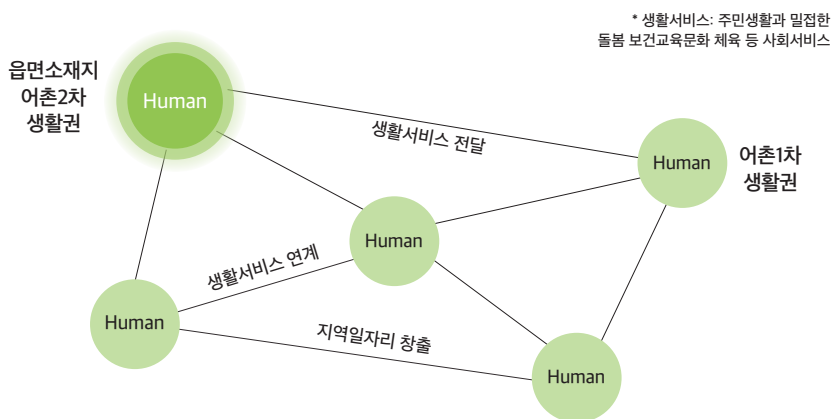


그림. 어촌신활력사업 생활권 연계 방안(자체도식)

결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인구 유입과 지역소재 기업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촌생활권 내에 어촌스테이션이라는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전달 및 로컬 창업, 로컬관광까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과 다양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략 및 실행가능성을 기반으로 약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2023년 가장 문동항이 선정되어 생태, 에너지, 생활서비스 부분과 더불어 경제 환경을 재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사이어촌 마을 기장 문동항

기장 문동항은 상업공간으로 집객이 이뤄지는 칠암과 임랑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전통적인 어촌마을이다. 사이어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도시와는 가까운 곳에 있으나 삶의 방식

은 어촌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도시의 끝자락, 어촌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사이어촌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장문동항의 경우 “회복과 공존의 바다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스터플랜수립부터 현장운영까지 (주)로컬바이로컬과 플랜비에슬문화협동조합이 앵커기업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처음 문동항에 간판을 걸고 터를 잡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존 도시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과 달리 어촌은 빠른 움직임보다는 바다의 낱씨와 재배되는 작물의 수확에 따라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마을 반상회를 하려고 해도 미역, 다시마철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면 안 되는 것을 겨우 10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역할분담이 잘 되어있어 경우에 따라 어촌계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쪽파잡목반장님, 1반부터 4반까지 반장님들, 노인회회장님, 해녀회장님 등 작은 조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을 파악해나가는 것 또한 경험과 실수로 커뮤니티를 연결해나가고 있다. 초기 4명의 상주인원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진행되었으나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되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성과도 있었다. 지역의 링커그룹간의 모임임 ‘안녕하세요 문동입니다’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복지, 재생, 디자인그룹들이 참여하여 함께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동사랑방과 ‘문오성마을학교’에서는 한글교실, 가드닝, 맨손체조 등 지역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의 원물을 활용한 시제품화와 문동지역만의 달력을 제작하기 위한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동지역 내 작가, 공방을 운영하는 팀들과 협업하여 현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어촌마을에서 재생적 결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문화적 부분 또한 생활문화와 공간문화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크지 않지만 작은 모임에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적 통합이 필요하다. 경계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도시와 다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어촌 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링커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문동입니다'
출처: 홍순연

부산,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김주현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 조교수

부산 원도심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여섯 팀의 문화기획자들(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부산 원도심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지역 청년들인 그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들의 노력이 부산 원도심의 재생과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를 함께 탐구해보았다.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실행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 1팀**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산 중앙동 동화책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과거 중앙동은 인쇄업이 번성했던 원도심이기에, 과거 인쇄소를 다시 활용해보고자 '동화책 제작'이라는 아이디어가 도출됐습니다. 어른의 시선이 아닌 순수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만의 차별화된 시선을 추가하였으며, 실제 원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와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 원도심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어린이 작가들은 중앙동을 열린 마음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중앙동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앙동 인쇄소의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팀** 원도심 테마를 활용한 커스텀 칵테일 제작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명칭은 칵테일로 눈과 코와 입을 칠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칠하고, 노래를 들으며 귀를 칠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도심 오색칠'로 정했습니다. 이는 원도심의 테마 공간의 역사와 의미, 분위기 등을 칵테일로 표현해보고 관객들과 테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음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커스텀 칵테일바'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 3팀** 저희는 부산 중앙동의 예스럽고 빈티지한 분위기를 잘 담을 수 있는 '빈티지 스냅 촬영'을 주

제로 진행했습니다. 20~30대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부산에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도 부산 원도심의 매력을 잘 느끼실 수 있게, 또 행복한 순간을 예쁜 사진으로 남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상상하며 기획하다 보니 팀원 모두 매우 기분 좋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로 중앙동이 스냅 촬영 명소로 유명해지면 유동 인구 증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냅촬영의 컨셉인 '빈티지스러움'이라는 브랜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방문율과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의 기대 효과도 다수 있습니다.

4팀 부산 원도심 중 인쇄 골목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쇄 골목이 활발히 이용되던 시기와 그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다양한 이유로 그곳을 방문하던 주변 회사 사람들, 디지털인쇄로의 전환과 그로 인해 기존 중앙동 인쇄 골목의 쇠퇴과정과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이로 된 보드게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아직도 다양한 인쇄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종이 인쇄물은 대체 불가능한 감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보드게임이 아닌 종이로 된 실물 보드게임을 제작함으로써 인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5팀 '노포'를 주제로 매거진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중앙동이 과거 원도심이었던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닌 가게가 많았습니다. '해당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고, 매거진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동의 이야기와 오래된 가게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엮어 레트로 감성의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키워드로 잡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매거진이 실제로 제작된다면 많은 대학생이 중앙동의 가게를 방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팀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의 역사적 자원을 재해석하여 '스트리트 퍼포먼스 : 20세기, 원도심을 만나다.'를 기획하였습니다. 부산 원도심은 근현대 역사적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자원이 일방적인 정보의 나열이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리트 퍼포먼스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적 자원에서 '재미'의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스트리트 퍼포먼스 : 20세기, 원도심을 만나다.'는 체험형 관광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지지 못했던 감수성을 자극하여 지역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의
원도심 현장탐방 - 인쇄 골목

原都心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며 바라본
부산 원도심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1팀** 옛날 건물들 속에서 역사를 엿볼 수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동 40계단은 문화관광 테마거리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우리는 잘 알지 못해 아쉬웠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창작공간(또따또가)을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이뤄나가는 사업을 하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2팀** 칵테일 테마로 지정한 보수동 책방골목은 부산의 문화적 뿌리와 지식의 저장고 같은 곳으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인 중앙동 40계단은 부산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장소마다 고유의 매력을 칵테일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오색칠'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3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전과 후 사뭇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와는 대비되는 칙칙한 모습과 동시에 역사적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대중이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느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교통편과 많은 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에 큰 가능성을 보았고, 원도심이 신대륙을 발견한 듯한 이미지로 바뀌어 흥미진진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4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바라본 원도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과거 그 공간이 어땠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도시 속 다른 공간들과는 달랐습니다. 원도심은 도시가 변화하기 전의 모습은 간직한 채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과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되어가며 고유의 분위기를 형성해나가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 5팀** 중앙동 40계단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했었습니다. 예전 피난길의 중심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활력이 없는 상가들이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공허한 느낌을 줍니다. 다 같이 중앙동을 탐사하며 노포를 주제로 다양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발견했고 이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 청년층을 위주로 기획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부산 원도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6팀** 처음 부산 원도심에 대한 이미지는 낙후된 곳, 노후화된 곳, 즐길거리가 없는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곳을 탐방하고 정보를 찾다 보니 원도심은 생각보다 20~30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포 맛집, 요즘 핫한 레트로 감성의 거리 및 카페, 역사적 공간인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보물창고 같은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역의 상황을 창의적인 시도로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들은 결국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그들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며,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팀 소개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재학생들

1팀: 임한비, 이경민, 신수빈, 조가은

2팀: 박민진, 박지성, 신지혜, 유예진, 이영경

3팀: 손혜리, 안창준, 한의정, 현예승

4팀: 박기덕, 조민정, 노대현, 한수현

5팀: 김건우, 김영건, 문선아, 김기빈, 김태원

6팀: 김준호, 최윤우, 송화림, 이은서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역문화진흥원(2021),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이소민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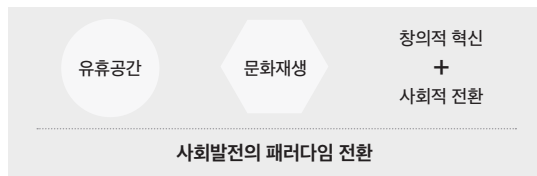
도시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유희공간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산업용 부지, 미개발된 도심 지역, 노후화된 공공 공간 등이 기존의 용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성의 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불황, 인구 이동, 도시 계획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유희공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공간들은 단순히 도시에 방치된 장소가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잃고 버려진 건물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면, 역사적 상징성, 사회 문화적 의미, 지역사회의 기록 등이 남아 시대의 흔적을 가진 장소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희공간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대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21년 지역문화진흥원이 발간한 「유희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이하 보고서)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보고서는 각기 다른 부처 및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최근 지방분권화 및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환경변화에 걸맞게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생 조성 완료 운영시설 22개 대상지를 범위로 설정하여,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자 했다. 유희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 부처의 다양한 유희공간 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통합 TF팀의 구성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더불어 유희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생성된 장소와 지역의 연결과 지역 간 앵커시설의 교류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문화와 사회의 연결을 통한 창의적 혁신 및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에는 함께 살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번 보고서에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을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각개전투로 진행돼 왔기에 이번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정책이란,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효과로 사회발전을 위한 창의적 혁신과 사회적 전환을 이끌어내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는 문화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유휴공간을 단순히 공간적 관점에서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혁신과 사회적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책적 지원과 주민 참여,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정의 장소기반 문화재생의 새로운 가치효과로 지역 혁신과 전환을 이끌어가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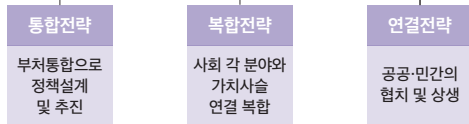


정책비전 문화재생, 지역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작의 중요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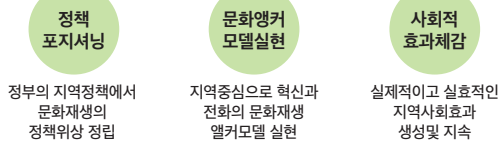
정책방향

사회활력 회복 : 장소기반 문화가치로 지역활력 회복 및 활성화
가치동력 전환 : 문화바탕으로 지역발전의 관점을 새롭게 전환
스타일의 혁신 : 지역중심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방법론 지원
지역효과 창출 : 지역에 문화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현하고 파급

추진전략



정책목표



출처: 지역문화진흥원(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둘째, 추진방안에는 문화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별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 간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중앙-광역-지역’ 순의 전달체계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가진 유휴공간 자원은 매우 다양하다. 국토교통부의 폐역사 공간, 교육부의 폐교, 행정안전부의 교도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빈 농가 및 창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도심 유희상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폐산업 단지 등이 있다. 각 부처별로 가진 자원을 모아 통합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통합 모델과 함께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생 촉진 방안을 담아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재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주민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됐지만, 사실상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촘촘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책연결을 통한 지역문화 상생 추진방안에서는 유희공간 문화재생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문화장소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유희공간 문화재생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A지역의 앵커와 B지역에서의 문화재생 앵커장소를 서로 연결해 교류 및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간 추진돼 온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버려진 공간을 단순히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더 나아가 앵커 장소 간 연결로 새로운 지역사회의 가치를 구축하고, 사회전환의 플랫폼을 만드는 등 확장된 의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재생 앵커 간의 교류는 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장점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화재생 앵커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만 편중될 위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앵커 지역 간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다를 경우,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 조정 위원회 또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희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너머의 시설 및 환경까지로 대상을 확장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건물 인근의 공터, 벤치와 같은 구조물, 숲, 수변 등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유희공간 재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차원의 재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예산 및 자원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제2의 빌바오 꿈꾸기

용도를 상실한 유희공간은 이전에 사용되던 용도와 함께 각 지역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는 항구 도시로서의 역사와 해양 문화를 바탕으로 유희공간을 재생할 수 있다. 폐산업단지나 빈 창고를 해양 문화 센터나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역사와 현대적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관점과 타 부처의 자원,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산도 제2의 빌바오가 되지 않을까.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4. ~ 06.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인공지능 - 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4.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①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②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③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④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행사에서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청와대 개방 2주년,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가치, 문화예술로 되새긴다(4.30)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그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시와 음악회, 다원예술 등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관람 수요에 맞춰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5.10)

문체부는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한국문화사회학회 2024년 봄 학술대회 개최(4.23)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4월 26-27일 부산대학교 사회관에서 한국문화사회학회와 봄 학술대회를 공동주관해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더 중요해진 '연결'과 '관계'에 대한 문화사회학적인 논의를 갖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문화재단, 도요코인코리아(주)와 BS아티스테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30)

재단은 도요코인코리아(주)(대표이사 홍지명)와 BS아티스테이(Artist+Stay)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창작을 위한 출장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활동 범위 확대 및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서울 지역 지정 숙소 이용 시 숙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일 10만 원 이내, 1인 최대 3박까지 지원해주며, 지정 숙소는 도요코인 서울의 강남, 동대문, 영등포이다.

"通, 하는 우리"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5.5)

재단은 5월 3-5일까지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와, F1963,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등에서 "通, 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4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UNESCO의 정신인 '포용(inclusion)', '다양성(diversity)', '협력(cooperation)'을 주제의식으로 뱃길 탐방, 무용극 등의 공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특별전 등으로 시민들과 교류하며, 더불어 발달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모든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유아예술교육 도서 발간(5.14)

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B.A.R.T.E(문화예술교육 총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총서 『엄마랑 놀자! 예술로 놀자!』를 출간했다. 본 총서는 '예술놀이'가 왜 유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유아교육 전문가의 담론과 일상 속 엄마 예술가의 에피소드,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예술놀이 활동지로 구성했다. 총서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문화교류·문화ODA 중심 연구교류 확대한다(5.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은 한국공공외교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문화교류와 문화ODA 중심 연구네트워크 외연 확대에 나선다. 앞으로 연구자의 교류 및 협력,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공동연구 및 공동 관심분야 발굴과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손잡고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 시작(4.30)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창룡)과 함께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 사업 <우리시각>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 <우리시각>은 발달장애 신진 미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억 5천만 원의 기부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예술인이 차별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전했다.

노들섬, 노들컬처클러스터 구축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 노린다(5.24)

재단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노들컬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노들섬이 가진 다양한 공간과 재단이 20년간 쌓아온 문화예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근에 있는 기관,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서울의 새로운 문화예술 지도를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1호 협력기관은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으로 5월 23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에는 노들섬 내 꽃밭을 조성하는 아트가드닝 ‘노들섬, 꽃피우다’를 진행했으며, 6월 14일까지는 팝업 전시 ‘유행화장품’이 열려 노들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4.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기후변화 주관을 맞이해 E-순환거버넌스 폐기되는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폐전자제품의 효과적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년 기관 중장기 종합 혁신계획 수립(4.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진흥원)은 ‘2024년 기관 중장기 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4대 자율 혁신과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홍보 강화, 지역사회 ESG 선도, 국민 체감형 문화예술교육 재설계, 조직 역량 및 소통 강화로 이뤄져 있다. 또한 올해도 주니어 직급 직원을 중심으로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해 전사적 혁신 문화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과 각종 개선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참여자 모집(6.3)

문체부와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4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연수 참여자를 6월부터 본격 모집한다. 이는 예술교육 및 기획·행정인력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총 140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온·오프라인 연계 연수가 가능하다.

인천문화재단

예술현장에 묻는 ‘HOW ART YOU?’(5.27)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분야별 예술인 간담회 ‘HOW ART YOU?’를 개최해 인천 예술인과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예술현장에 답신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물론 예술인 복지 등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5 / 2024 Summer

